

# “전통문화 숨쉬는 무등산서 휴가를”

## 증심사 지구, 시민 위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

광주를 대표하는 산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전통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재 무등산에는 광주 대표사찰인 증심사, 약사사, 문빈정사, 원효사 등 전통사찰을 비롯해 100여개 사찰이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증심사를 포함한 증심사 지구다.

‘증심사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펼쳐지는 강남로 일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매일 2~3만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증심사지구에는 ‘국유미술관’이 먼저 시민들을 맞이한다. 국조호 작가와 윤영월 작가의 성을 따서 이름 지은 국유미술관은 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어 ‘우재김미술관’이 있다. 우재김미술관은 한국 추상미술 원로인 우재김 화백이 2001년 세운 광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이어 ‘무등현대미술관’이 현대적 건물과 정원으로 탐방객을 맞이한다. 무등현대미술관 맞은편에는 최근 개장한 ‘광주전통문화관’이 자리한다.

이곳은 광주은행 전신인 호남은행 설립자 현준호 선생이 광주시에 기증한 한옥을 개량해 공연장과 체험공간으로 꾸민 곳이다. 매주 토요일 무료 상설 공연이 펼쳐지며 명절에는 전통놀이와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광주전통문화관’을 지나면 무등산 탐방로에 접어든다. 탐방로 초입에는 한국 근보교리 체계를 확립한 병고 고익진 교수의 부도가 있는 광복사가 있다.

무등산 관리사무소를 지나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면, 처음 만나는 절이 문빈정사(주지 법선)이다. 한국민중화운동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지선 스님(백양사 주좌)이 회주로 있는 이곳은 8·90년대 대중불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민중불교를 주창한 <무등>지 발간으로 광주는 물론 한국불교의 대중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최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다양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 광주최초 사립미술관 등 다수

## 증심사 상설공연 다채 진행

## 각종 문화제 시민발길 받겨

## 아시아 문화전당 연계 벨트

문빈정사를 지나면 무등산은 온전히 사찰과 산이 마주한다. 산과 계곡을 따라 1km남짓 산행을 하면 증심사와 통하는 갈림길에 나온다. 이곳에 의재미술관이 있다.

이곳은 20세기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大家)인 의재 허백련 선생이 무등산에 머물며 그림을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며 차를 재배했던 곳에 지어진 미술관이다. 의재미술관에서 문향정-미술관실터-옛날자공장-춘설현-의재선생 묘소-관풍대로 이어지는 의재 선생의 유적들이 있다.



왼쪽 위부터 ①무등현대미술관, ②의재미술관, ③문빈정사, ④증심사.



의재미술관을 지나면 광주의 대표적 사찰 증심사(주지 연광)와 마주한다. 증심사는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 명사초청법회 등 다양한 법회와 문화활동을 보여주는 곳으로 최근 시민들을 위한 쉽고 편한 불교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는 지난 2002년에 시작해 매일 한차례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

증심사에는 시민들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증심사에는 광주시 문화재자료 1호로 보물 131호 철조비로자나불상, 오백전(유형문화재 제13호)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있다. 증심사 갈림길에서 세인봉을 향해 800m

를 가면 약사사(주지 운산)가 있다. 보물 600호 석조여래좌상과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있는 유서깊은 기도사찰이다.

현재 광주에는 5.18민중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전라남도청 자리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추진돼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규모에 비해 큰 관광요소가 없던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무등산 증심사지구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문화벨트에는 불교전통과 현대예술, 산사음악회, 체험이 함께 어울어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남도문화의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부처님 가르침으로 환경 보호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5주년 행사 개최

호남지역 생명평화운동을 선도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창립 5주년을 맞아 6월 29일 후원의 날-야단법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날에는 광주전남지역 스님들과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김경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먹거리 장터,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창립 이후 ‘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이라는 화두를 갖고 불교NGO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환경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는 환경법회와 빈그릇운동,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518묘역 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



후원의 날에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이 진행됐다.

으며, 밝은마음초록세상 대중공연, 산에 들에 생태문화기행, 책 읽는 모인인 보리수아래의 부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환경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생태학교, 자파따따 1박 2일,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 등을 개최해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착한벗들, 이주여성 한국사회 정착 도와

## 7월 5~29일 캄보디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대상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훈련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착한 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주지)은 7월 5~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한국의 역사, 사회, 가정문화, 생활분야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출신국가별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7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9월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이 참여하게 한다.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내 전문가 및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진

행되는 이번 교육은 무근 스님의 ‘한국가족문화의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음식 문화체험(자연음식문화원), 전통문화체험(도립국악원) 등이 이어진다. 또 경기 전나무이야기 명사와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착한벗들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출신국가별 모임을 결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연극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생명나눔, 백혈병 환우 돕기 콘서트

백혈병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음악회가 열렸다.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6월 28일 광주빛고을문화회관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생명나눔 콘서트 6’을 개최했다.



6월 28일 열린 콘서트 장면

이날 행사는 소아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음악회로 광주생명나눔에서 15번째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장학금 및 공로패 전달식, 발원본 낭독, 홍보이사 가수 주권기, 한서은(펜플루트), 최거룡(색스폰), 종립 정광고등학교 댄스팀의 로터스 공연, 임지형과 광주현대무용단의 무용, 명문아동센터 및 KCTS 하트너 봉사단의 통기타 동요 연주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주요 초록한 그 눈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만이 그 힘겨운 병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발원문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이 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완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 달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질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이 너무 힘겨워 보인다”며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

## 대법원, 천은사 관람료 징수 부당 판결

구례 천은사(주지 성문)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과 통행자료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월 19일 강모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지리산 등산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천은사에 입장료 1,600원과 함께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 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은사가 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천은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추후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무소 측은 “지난 2011년에 법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공원문화유산 지구’로 다시 지정하여 문화유산 입장료로 징수하겠다”며 지난 6월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은사 측은 “그동안 사찰을 관통하는 지방도 861호 도로가 지난 1982년 군사정권에 의해 천은사 소유의 토지가 강제 수용돼 개설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행환경을 도로자체가 천은사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도로”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참좋은우리절, 하계 수행프로그램 마련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지역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아동·청소년들의 포교전반을 위해 7월 28일 2013 하계 포교 및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중이 대중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담마(法談)토크에서는 신행과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마련된다. 스님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즉문즉설의 형태로 진행될 담마토크는 쌍방향 방식의 새로운 실험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도된다.

조계종정정승가대중결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출산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스거제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 스출바라대표 돌출 스님 스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 등이

참여한다.

또 7월 26~29일 3박 4일간 ‘나 더하기 너는 우리’라는 주제로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여름불교학교는 △명상아놀자와 한나무인성교육 △단결, 부처님을 도와라 △아외물놀이와 송크란 축제체험 등 놀이와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청소년들의 미디어기기(스마트폰, 인터넷게임 등)중독과 학업스트레스를 치유, 완화할 수 있는 ‘청소년 마인드케어 캠프’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피 주발집중수행’이 진행된다. (063)236-6633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자 지원 가능합니다.



### - 신쌍 출가의식 지원

신쌍은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쌍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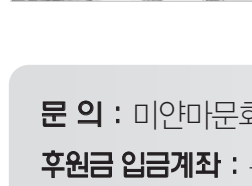
###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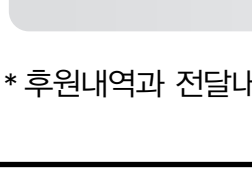
###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